

##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

‘CGN 개국 20주년 감사예배’ 임직원, 교계 인사 참석  
3월 30일 오후 8시 20분 특집 대담 방영



CGN 개국 20주년 감사예배에서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선교미디어 CGN이 개국 20주년을 맞이했다. CGN 개국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3월 28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3월 30일 오후 8시 20분 CGN TV 채널에서는 CGN 20주년 특집 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를 방영한다. 3월 31일 오후 6시 10분 CGN TV 채널에서 재방송한다.

CGN 개국 20주년 감사예배에는 임직원과 온누리교회 리더십, 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기 장로 대표기도, 크룩스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흥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강대홍 사무총장(KWMA) 축하 인사, 신철우 장로, 전진국 대표 감사 인사, 조혜련 집사 홍보대사 위촉, 장기근속자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 누리의 복이 되다’(창 12:1~4)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복음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CGN은 참 진리를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라면서 “CGN이 만드는 복음 콘텐츠를 통해 온 누리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전진국 대표는 “CGN은 글로벌 크리스천 미

디어로서 세계와 세대를 잇는 복음 미디어를 지향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디어가 급변하는 시대에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과 관심, 후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GN은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 비전으로 2005년 개국했다. 지난 20년 동안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CGN이 그동안 써온 역사가 엄청나다. 2005년 미주 CGN 개국, 2006년 일본 CGN 개국, 2008년 대만 CGN 개국, 2010년 태국 CGN 방콕 제작센터 오픈, 2012년 아랍 CGN 아부다비 제작센터 오픈, 2014년 인도네시아 CGN 자카르타지사 설립, 2015년 홍콩 CGN World 설립, 2017년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개봉, 2021년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공식 론칭, 2024년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주관방송사 등의 역할을 해냈다.

CGN이 제작한 선교 콘텐츠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미국 ‘제52회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금관상을 수상했고, 책 ‘바울로부터’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았다. CGN 성경공부 콘텐츠 ‘이스라엘로 오십쇼’는 미국 ‘크리스천 필름 페스티벌’(CFF)에서 최우수 교육 영화상과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관련기사 6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4주차 주제 ‘땅’

2025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 계돌봄’이 4주차에 돌입했다. 4주차 주제는 ‘땅’이다. 월요일(3월 31일)에는 가정과 일터, 학교 등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함내세요”라고 말하기를 실천한다. 4월 1일(화) ‘이면지 활용하기’, 2일(수) ‘일회용 물티슈 사용 최소화하기’, 3일(목) ‘종이 영수증 대신 온라인 영수증(명세서) 받기’, 4일(금)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를 실천한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매주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돌보고 지키는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실천 사항 이해를 돕는 전자책도 제공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후기를 소감문으로 작성해서 4월 20일(일)까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이메일(onnuri.lent@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 죽임당하신 어린양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 오는 4월 18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40일 새벽기도회 4주차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양’이다. 3월 31일(월) ‘사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요 13:3~17), 4월 1일(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식탁’(눅 22:7~20), 2일(수)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마 26:36~46), 3일(목)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눅 23:33, 43), 4일(금) ‘버려짐 속에서 이루신 구원’(마 27:45~54)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40일 새벽기도회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웹페이지(onnuri40.onnuri-church.com)를 운영하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40일어린양을바라보라)하고, 사진과 태그가 담긴 게시글을 캡처해서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된다. 홍보웹페이지에서는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박철록 집사(마포공동체)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고, 임명숙 성도(여의도공동체)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 차세대 기획예배 ‘우리 몸으로, 풍당! 심장 어드벤처’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기획예배 ‘우리 몸으로, 풍당! 심장 어드벤처’를 드리고 있다. 차세대 기획예배는 CGN에서 제작한 ‘우리 몸으로, 풍당!’ 영상과 교재를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몸속 세계를 탐험하고, 그 안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차세대 기획예배는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차세대 예교과 꿈땅 영역에서 진행한다. 서빙고와 양재, 도곡은 지난달과 이번달에, 나머지 캠퍼스는 3월과 4월 중 기획예배를 드린다. 1주차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2주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속을 배워요’를 주제로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시청하는 영상도 제공한다. 문의: 02-3215-3521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양이 행하신 일과 또 장차 행하실 일 때문입니다. 어린양이 이루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양이 ‘승리하신 사자’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어린양이 영광스러운 사자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이 교훈이 <계시록>의 핵심적이에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모든 나라와 족속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정복당하심으로써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린양이 장차 이루실 일은 악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에 의하여 망가져가고, 자멸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어린양이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일곱 인으로 인봉된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은 일곱 빨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악에 의하여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이 원수를 정복하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린양의 진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구원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양의 진노

요한계시록 6:1~17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어린양이 승리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죽임당한 어린양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

이제 죽임당한 어린양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 나타납니다(계 11:15). 어린양이 그 책의 일곱 인을 하나씩 떼 때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실행됩니다. 이 심판은 먼 미래, 마지막 심판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현재 보고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지진 등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인류를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시록>에 근거해서 보면 악에 근거한 것이고, 사단에 의한 것이며, 악과 사단에 대한 심판으로 허락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이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이 악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멸하는 방법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심판 가운데 더욱 연단될 것이고,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일곱 인들의 재앙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이 각기 일곱 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세 번 반복됩니다.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씩 주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동일한 계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봉인된 책을 떼는 것은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알리는 도구입니다. 심판이 전해진다는 것이고, 대접을 얹으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드러나고, 전해지고,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화되고 반복되면서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네 가지 색의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인은 그 가운데 교회가 받을 고난과 핍박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에서 모든 심판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린양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하나씩 떼실 때 네 마리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말이 네 마리인 이유는 동서남북,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말의 의미는 전쟁입니다. ‘레블레이션 인카운터’라는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흰 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후예인 고대 파르티아인들인데,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군사들이 많아서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흰 말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작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것은 계속되는 정복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기사 역시 전쟁의 힘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전쟁, 피 흘림과 연관됩니다. 서로 죽이는 것은 사회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기사가 들고 있는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불균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입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을 탄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색의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 세상에 진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곧 종말입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지진 등은 악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악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허락된 것입니다.

### 어린양의 진노가 실행될 때 세 가지 주목할 점

어린양의 진노가 실행될 때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러나 4분의 3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이후 일곱 나팔일 때는 3분의 2를 죽일 권세가 주어졌지만, 여전

히 3분의 1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곱 인에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4분의 1이 죽임당하고, 일곱 나팔 때는 3분의 1이 죽임당하며 심판이 강화되지만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 그 자체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와 증언을 통해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는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함께 형제들의 수가 잘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형제들의 수가 잘 때까지 순교자가 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심판의 과정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며,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어린양을 따른 이들의 순교적 증언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은 어린양의 피로 회개 된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진노를 견딜 수 있습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고, 이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양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순교적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순교적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들입니다. 어린양이 승리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선과 악

도덕의 근원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최근 우리 사회의 풍조나 시류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너지고, 혼란하다는 것을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보편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더없이 혼란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주장하는 평등과 평화가 오히려 불평등과 역차별, 사회적 혼란, 삶의 파괴를 일으키는 모순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인류 사회에서 옳고 그름은 ‘도덕(윤리)’과 ‘정의’로 표현된다. 도덕과 정의에 내포된 옳고 그름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즉, ‘선한 것은 옳은 것이고, 악한 것은 그른 것’ 이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이라는 인류의 ‘절대적인 가치’이다. 현재 인류가 맞이한 혼란은 이 절대적 가치를 부정함으로 기인한 도덕과 정의가 파괴된 결과이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이 현상은 깊이 뿌리내려져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하여 맺은 열매이다. 이는 문화, 사상, 교육, 성, 가정, 정치 등 모든 영역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 혼란의 근원적 뿌리는 신(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다. 무신론은 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신무신론으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왜 신(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이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일까? 먼저 무신론자들은 신을 없애고 그 자리를 ‘과학’으로 채우면서 종교와 과학을 서로 반대되는 속성으로 대립시켰다. 이 대립은 종교를 비과학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이며, 진보적이지 않은 구시대적인 개인적 신념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 속에서 신(新)무신론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에 신은 필요하지 않으며, 진화와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진화론’이다. 인간은 단 백질 분자의 조합으로 시작되어 무작위적인 DNA 변이와 자연선택 진화를 거듭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우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재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 원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신(新)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도덕의 토대는 생존의 이해관계를 위한 생물학적 이타심에서 비롯되고, 도덕의 목적과 기능은 생존에 유리한 우월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진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진리)’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논리적이

진화론이 도덕의 토대라는 주장은 생존에 불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현대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상충한다. 이는 명백한 모순점이다. 더하여 인류의 생존을 어려워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논지는 인종주의나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사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더 우월한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 도덕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화론적 접근으로 도출한 도덕은 ‘선’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더하여 우리가 왜 ‘선’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일 뿐이지 검증된 ‘사실(진리)’이 아니다. 실험을 통해 일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논리적,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의 정의에 진화론은 부합하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종에게 발견되는 도덕적 형태가 있음을 확언함으로 인류에 내재된 선이 있음을 밝혔다. 인종, 문화, 시대를 뛰어넘는 ‘선’이라는 가치가 ‘왜’,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성경에는 ‘선의 근원’과 ‘왜 우리가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기록되어 있다(창

1:26~27, 레 18~20장, 마 5~7장). 이는 인류 도덕의 토대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선’이 있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도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신론은 절대적 가치인 ‘선’을 근원으로 하는 도덕 본질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더없이 혼란한 세상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인간은 ‘선’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도덕 파괴라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슬 성도  
(마포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로서 ‘선’의 근원이자 본질이신 예수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무신론적 접근으로 교묘하게 왜곡시킨 ‘평등’과 ‘평화’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준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 빛과 진정한 ‘선’을 이루어가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기고

탈기독교 세상의 도덕적 괴물들

올해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는 아노라역을 맡은 ‘마이키 매디슨’이었다. 가족, 친구, 영화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한 그녀는 러시아 귀족과 역기능적인 로맨스에 휘말린 젊은 이국적인 댄서이자 매춘부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 영감을 준 ‘성 노동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저는 다시 한번 성 노동자 커뮤니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지하고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모든 놀라운 사람들, 여성들은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착취적인 직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지는 미투 이후 시대에 특히 낮은 일이다. ‘라이브액션’의 라일라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성 노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적이고 사악합니다. 취약한 어린 소녀와 소년을 잡아먹습니다.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방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와 학대를 조장합니다.”

사실 영화 자체와 여배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매디슨은 자신의 신체가 세

상에 노출된 실존 인물이다. 그녀는 돈을 받았다. 동의했다고 해서 그녀도 착취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바뀌는가?

문화적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타락한 남성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앤드류’와 ‘트리스탄 테이트’가 있다. 공개적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테이트 형제는 무슬림으로 테러 단체를 찬양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비하하는 것을 자랑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우익 팻캐스터들은 미국 정부가 루마니아에 압력을 가해 2022년부터 여성 성폭행 및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 중인 이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하자 이를 반겼다. 여성 착취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칭하며 찬양하는 왜곡된 논리의 다른 형태로 테이트 형제가 끔찍한 남성이 되어 반남성적인 워크(Woke) 문화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옹호 받고 있다. 다행히 플로리다 법무부 장관이 이 형제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미국 홍보 투어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진보적인 영화배우와 극우 팻캐스터는 서로 용납하지 못했을 것 같지만, 둘 다 똑같

이 도덕적 혼란을 받아들였다. 성 노동 또는 성학대자에 대한 찬양은 말굽 이론(극좌파와 극우파가 말굽처럼 서로 밀접하게 유사하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각각은 성적 자율성을 인간 최고의 선으로 받아들이고, 동의를 정당한 성윤리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존엄성을 높이고, 남성의 충동을 억제해 온 사상인 성경의 인간관을 거부하는 개인과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몇 년 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두타트는 기독교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종교적 우파가 싫다면 종교적 우파가 사라진 후 올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신우파’의 반유대주의와 여성 혐오가 바로 로스 두타트가 의미한 이들일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를 배제한 극좌 기독교 윤리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목격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지 모른다. 답은 “하나님 없이는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없다”이다. 그렇

다고 인간이 자신의 분노나 억압, 부풀려진 자아를 도덕적 깨달음이나 지혜로 착각하는 시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 제안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좀비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지만, 반감기가 반쯤 남아서 남성과 여성,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사상일 뿐이다.

한편, 탈 기독교화된 서구는 기독교가 이바지한 도덕적 모멘텀을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 모멘텀에 연료를 공급한 실제 진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옳고 그름, 정의와 진리, 용기와 연민,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서구는 기독교가 마침내 사라진다면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결론은 ‘회개와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개인, 가족, 사회는 진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다.

/ 존 스토티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티모시 패치(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신학자, 역사신학 박사)  
원문: breakpoint(20250321)

예수 따라, 성령 따라 국내 온누리교회 탐방 1. 강동온누리교회

#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역동성 자랑하는 교회

## 강동온누리교회 이준호 목사와 함께!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Acts29 비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온누리신문>에서 Acts29 비전이 완수되는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간다. '예수 따라, 성령 따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와 협력 기관을 탐방하며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여정은 '강동온누리교회'다. 이준호 목사에게 강동온누리교회가 써내려가고 있는 Acts29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강동온누리교회 담당 이준호 목사.  
▶ 지난 3월 공동체 연합 개강예배(위).  
▶ 2024 '행복한부부학교' (아래).

강동온누리교회는 청년공동체에서 태동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파생된 '프라미스공동체'가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건국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다. 프라미스공동체의 사역이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했다. '건대온누리교회'로 새롭게 태어날만큼 눈부시게 부흥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강당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예배당을 찾아야 했다. 마땅한 예배당을 찾다가 건대온누리교회를 천호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강동온누리교회로 명칭도 바꾸었다. 그때가 2010년 10월이었다. '프라미스공동체'가 '건대온누리교회'로, '건대온누리교회'가 '강동온누리교회'로 옷을 갈아입었다. 사역 대상도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로 확대됐다. 김평래 목사, 라준석 목사, 권혁빈 목사, 최원준 목사, 노치형 목사 등이 섬겼고, 지금은 이준호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강동온누리교회가 창립하면서 당시 양재온누리교회 송과공동체 중 강동지역 거주 성도들이 파송됐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세대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역이 시작됐다. 이준호 목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동온누리교회는 단순한 지역 교회가 아닌 '비전공동체'입니다. 복음 전도의 비전을 공유하며 모든 세대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온누리교회는 청년들의 헌신과 열



정, 장년들의 지혜와 경험이 어우러져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교회입니다.”

이준호 목사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강동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제가 강동온누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무엇보다 성도님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면서 새신자와 기존 성도님들을 구별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고 대면예배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목회적 통찰을 얻게 됐다.

“이제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 날마다 커졌고, 새로워졌던 '비전'

강동온누리교회의 비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확장되고 변모해 왔다. 처음에는 청년공동체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성인공동체를 중

심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로 지경을 넓혔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예배당 이전이었다. 강동온누리교회가 천호동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성도들이 그 비전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어 나갔다.

“강동온누리교회는 천호동 변화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마다 상가 광장에서 전도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사회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강동온누리교회의 두드러진 강점은 '변화'와 '도전'에 있었다. 강동온누리교회가 추진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 중 하나가 '거리 청소'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각인시켰다.

“강동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지자체 표창도 받았습니다. 거리 청소 외에도 독거노인, 보육원 등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도 지속적으로 전개했었습니다.”

### 역동성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

강동온누리교회에는 역동성을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사랑부'다.

“강동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예배와 섬김, 나눔과 교제 등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사랑부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김준희 집사님은 특수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술치료를 공부해서 사랑부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여는 등의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김준희 집사님을 포함한 강동온누리교회 사랑부 리더십과 봉사자 모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둘째, '행복한부부학교'다. 행복한부부학교는 '젊은부부학교'로 시작했는데,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기 위해 그 명칭을 변경했다.

“강동온누리교회 행복한부부학교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부부들, 특히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대 부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부부학교는 가정의 회복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비전과 방향 그리고 기도제목

이준호 목사가 강동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밝혔다. 기도제목도 나눴다.

“강동온누리교회는 Acts29, 예수 바보행전의 비전을 따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차세대 신앙 교육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뿌리내리고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사역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남양주M센터를 방문해서 이주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이주민 가정들을 위한 한글 학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영적 성장도 돕고 있습니다. 기도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는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당 이전입니다. 지금 예배당이 천호동 상가 고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화재 위험과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역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선교 사명의 생명력으로 40년 광야길을 개척했다”

## 해외·사회 선교 펼치는 이재훈 목사에게 비전을 묻다

서울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가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1985년 하용조 목사가 개척한 온누리교회는 2011년 이재훈 목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액츠(Acts)29’로 대표되는 해외선교와 사회선교본부가 주도하는 사회선교라는 두 축으로 사역하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교회에서 만난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 사역은 확장했다기보다 광야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선교라는 중요한 사명이 생명력이 돼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의 소회와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0주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 이후 이어달리기를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온누리교회의 40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또 올해 특별한 사역 계획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선교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광야 40년’이라고 정리했다. 교회를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는 한 번도 정체되거나 머물렀던 적이 없었다. 해외선교가 확장된 것은 물론이고 국내 각 캠퍼스로 흩어지고 또 사회선교를 계속한 것은 마치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광야를 걸어가며 사명을 다해온 것이다.

4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교회의 사역을 정리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사역 영역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직접 쓰고 있고, 나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맡았다. 하 목사님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축매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소금과 같이 자신은 녹아 없어지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또 10월에는 국내외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인 ‘온누리사역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사역의 두 축은 액츠29로 대표되는 해외선교와 사회선교(금후) 사역이다. 그동안의 기여와 열매가 궁금하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지난 40년간 누적 파송 선교사가 2,278명이고, 현재 69개국에서 870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 목사님께서 출석 성도가 7,000여명이던 1994년, ‘선교사 2,000명 파송’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2018년 2,000번째 선교

사를 파송하며 그 비전을 달성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선교 헌금 작정으로 출발하고, 모인 금액을 오직 선교 활동에만 사용한다. 지난해 선교에만 130억 원 이상 사용됐고, 올해는 135억이 작정돼 있다. 방송 선교인 CGN을 위한 헌금 50여억 원 등을 따로 계산해 보면 포괄적인 선교 재정은 훨씬 더 많다. 매년 국내외 선교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9,000여 명에 이른다.

또 금후 사역을 사회선교본부로 확대해 이주민, 탈북민, 미혼보, 농어촌, 쪽방촌 등 소외 이웃을 위한 일과 창조질서 회복에도 투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온누리교회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 반대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했기에 교회에 신뢰가 쌓이고 더 많은 후원이 모였다.”

**두란노와 CGN을 세우고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CGN이 20주년을 맞이도 했는데 문화를 통한 선교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광고 없이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CGN이 지금까지 지속된 게 기적이다. 예산 중 3분의 1은 교회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국 교회 많은 성도가 동참해 주신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총 6개 지사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유일한 기독교 방송으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방송을 보고 회심해 지사를 찾아오는 현지인이 매년 200~300명이 넘어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기초

양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전 세계가 모바일 미디어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미디어로 복음을 담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성도들을 맞춤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로잔대회라는 세계적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로잔대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평가한다.**

“디지털 문화혁명 시대,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 시대에 열리는 첫 번째 선교대회로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한국 교회가 섬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했던 것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위원회나 신학위원회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신학자들이 포진하는 등 역할이 컸다. 사회적 성(性)이 미국과 유럽을 뒤덮고 있는 때에 성경적 성 질서에 대한 선언을 담았다는 것도 의미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발표가 여전히 영어로만 진행됐다는 것이다. 첨단 통역기를 통해 다양한 현지 언어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0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WEA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대회가든 신학적인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WEA는 로잔운동보다 훨씬 앞서 WCC에 대항하여 세워진 복음주의 대회이고, 복음주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로잔대

회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복음주의권 모든 국제대회를 종교 다원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나가면 된다고 본다.”

**목회자의 번아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영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번아웃 돼서 미국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다. 번아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가정 속에서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목회자는 번아웃이 없다. 나는 부교역자들이 교회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사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교역자들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교회 일을 우선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한다. 나도 저녁 식사는 최대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려고 하고, 대신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온누리교회에서 14년째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것과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다면, 은퇴 전까지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교회에 특별한 분란 없이 이끌어왔다는 점이 감사하다. 또 해외선교 사역이 성장했고, 사회선교도 10배가량 증가한 게 큰 보람이다. 앞으로는 젊은 목회자들을 더 격려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많은 교회가 담임목사 은퇴가 결정된 후에 청빙을 시작하고, 또 외부에서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외부에 있던 목회자가 그 교회를 얼마나 알까. 훌륭한 기관들은 내부에서 좋은 인재를 찾아 꾸준히 관심을 두고 길러낸다. 교회도 부교역자들을 리더로 성장시키면 좋겠다. 최근 온누리교회 40일 기도회에서 30~40대 젊은 목회자를 강단에 세웠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다. 지금부터 온누리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 목회자를 키워내고 싶다.”



이재훈 목사가 2023년 레바논 베이루트를 찾아 난민 유치원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 이 기사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대담: 강주화 종교국장, 정리: 박용미 기자, 사진: 신석현 포토그래퍼

감사합니다 'CGN 개국 20주년'

#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국 대표  
(CGN)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CGN이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CGN이 지난 20년 동안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선교 미디어’라는 꽃을 피우도록 씨앗을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후원과 기도로 함께해주신 덕분에 CGN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CGN은 한계 없는 도전으로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20년 전 위성방송으로 출발해서 인터넷, IPTV, 유튜브, 그리고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까지,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방송 매체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CGN은 그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지난 20년이 성장과 복음 방송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향후 20년은 선교 미디어의 새 지평을 위한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국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주어진 사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 선상에서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정했고, 이 꽃대 아래 더욱 담대하게 선교의 길을 걸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CGN의 20년은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양질의 복음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CGN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미국의 권위 있는 기독교 영상 대회인 ‘제52회 ICVM 크라운 어워드’에서 해외 프로덕션 부문 최고 영예인 금관상을 수상했고, 책 〈바울로부터〉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모두 큰 상을 받아 감사했습니다. 또 ‘오십쇼’ 시리즈 중에서 ‘이스라엘로 오십쇼’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 필름 페스티벌(CFF)’ 공식 상영작(Official Selection)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교육 영화상’과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미국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에서 상영했습니다. CGN의 콘텐츠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점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CGN은 지난해 9월 송도에서 열린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주관 방송사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CGN을 들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



1



2



3



4



5



6



7



8



9



10



11

닫습니다.

올해는 CGN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며 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GN의 정체성인 ‘선교’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오는 6월, 조선을 사랑한 두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개봉합니다.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무명(無名)’이 현대에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가교(架橋)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CGN 미주 지사에서 제작한 한인 선교사들의 삶을 담은 선교 다큐멘터리 ‘미션 로그’, 세상에서 가장 낮고 험한 곳으로 향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땅끝의 증인들’ 시즌2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CGN은 광고 없이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 귀한 사역들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CGN이 광고 없는 방송국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과 후원

자분들 덕분입니다. 광고가 없기에 ‘오직 복음’이라는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CGN을 섬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CGN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CGN 구성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故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따라 CGN 구성원들은 용기, 창의, 협력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성도님들의 후원과 사랑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CGN이 더욱 창의적이고, 정교한 복음 미디어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GN은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Christian Glob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글로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 세계 6개 국가(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에 CGN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는 각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세계 선

1. 드림온 안테나 2. CGN 전경 3. CGN 해외지사 4. 정기후원행사에서 찬양 중인 임직원 5. 정기후원행사 모금 6. 풍당 2.0 7. ‘바울로부터’ 스틸컷 8. ‘바울로부터’ 스틸컷 9.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10.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중계를 맡은 CGN 11.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스틸컷

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CGN은 위성을 통해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현지화된 영적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CGN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시대 미디어는 점점 ‘개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가 종말하고, AI를 활용한 ‘뉴 미디어’(new media)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리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뤄야 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CGN 같은 복음 방송은 세상의 방송보다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송은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지만, 복음 방송은 복음이라는 핵심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숙명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CGN은 지속 가능한 기독교 미디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창의적인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시대를 선도하며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 힘써 온 CGN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CGN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주시고.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 수르바란의 〈하나님의 어린양〉과 바버의 ‘Agnus Dei’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수 세기를 지난 한 화가의 붓끝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17세기 스페인의 종교화가 프란

시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an, 1598~1664)은 단 한 마리 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대표작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이다. 수르바란은 종교적 명상을 시각예술로 풀어낸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을 지니며, 보는 이로 하여금 멈춰 서서 바라보게 만든다.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이 그림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루브르나 오르세미술관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나 프라도 미술관은 모든 작품에 대해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다) 오히려 눈과 마음으로 깊이 새겨 넣게 된다. 필자는 프라도에 갈 때마다 이 작품 앞에서 꼼짝없이 오랜 시간 서 있게 되는데, 단지 촬영을 하지 못해서는 아니고 작품이 주는 강렬한 감동 때문이라.

### 순종, 그 사랑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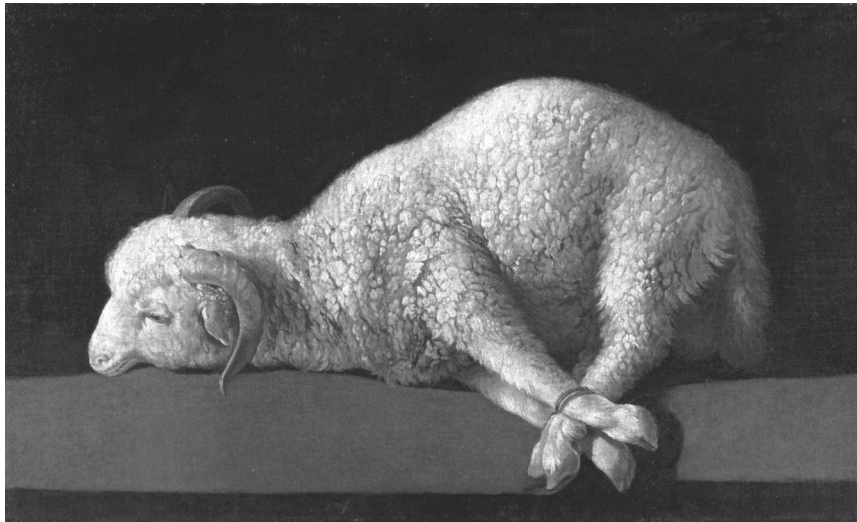
이제 수르바란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자. 어두운 배경 한가운데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진 양 한 마리가 환하게 빛을 받으며 누워있다. 눈을 감은 듯 낮아진 시선, 묵인 앞발, 아래로 향한 귀와 뺨, 고볼고볼 부드러운 보이는 털,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피조자 흐르지 않고 전혀 저항한 흔적이 없는, 그 침묵 속에는 외침보다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품은 신약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희생제물 어린양을 통해 상징하고 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의 선언이 그림 한 폭에 녹아 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흠 없는 어린양은 구속과 회복의 상징이었고,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에서는 죽음에서의 구원을 상징했다.

“흠 없는 수컷 어린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침묵 속의 순종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 걷는 제자의 발걸음으로.  
이 시대에도 수르바란의 붓과 바버의 선율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주에 바르라”(출 12:5-7).

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어린양의 피가 생명을 지킨 것이다. 수르바란의 그림은 이 모든 말씀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신앙의 초상이다. 그림 속 양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분은 말없이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을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성숙함의 표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르바란이 보여주는 어린양은 말이 없다. 항변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침묵은 저항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억울함 앞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복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수르바란의 ‘어린양’이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네 침묵은 믿음에서 오는가, 두려움에서 오는가?”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 앞에서도 침묵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수르바란이 그린 〈하나님의 어린양〉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와 성찰의 자리로 초대

하는 영적 고백이기도 하다. 이 그림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묻게 된다.

‘말보다 순종이 앞서고, 외침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깊은 복음 아닐까?’

〈하나님의 어린양〉은 단지 한 시대의 미술 작품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영적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양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그분의 희생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통적인 성가 중에서도 ‘Agnus Dei’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반복되어 온 기도이자 고백이다.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송은 단지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다. 수르바란의 어린양 앞에 선 우리는 다시금 요한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수르바란의 그림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이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함께 감상하면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한 또 하나의 작품이 있다. 바로 미국 작곡가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1910~1981)의 ‘Agnus Dei’이다. 이 곡은 그가 1936년 작곡한 대표작을 성가곡 형식으로 재편곡한 것으로, 1967년 발표했다.

바버의 ‘Agnus Dei’는 전통적인 바로크나 르네상스 시대의 성가와 다르게 현대적 화성과 감성의 깊이를 지닌 작품이다. 느리고 섬세한 선율은 인간 내면의 슬픔과 간구,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갈망을 고요히 어루만진다. 이 곡은 종종 장례식이나 추모 예식에서 연주되며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음악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특히 원곡 ‘현을 위한 아다지오’ (Adagio for Strings)는 베트남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준 영화 〈플래툰〉의 OST로 쓰이면서 20세기 작곡된 곡 중에서 가장 슬픈 곡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곡은 반복적인 멜로디 구조 안에서 점진적인 감정의 고조를 만들어내며 절정에서 다시 평화롭게 가라앉는다. 그 과정이 마치 죄와 고통을 지나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과 같다. 바버의 ‘Agnus Dei’는 음악을 넘어 침묵 속의 기도로 청중을 이끈다.

수르바란의 그림과 바버의 음악은 서로 다른 예술 장르이지만,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신앙적 핵심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하나는 시각을, 하나는 청각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깊이 새겨 넣는다.

수르바란의 양은 말하지 않지만, 복음을 외치고 있다. 바버의 음악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 울부짖음과 간구가 흐른다. 침묵은 이 두 작품의 언어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순절 기간 필자는 이 그림 앞에 머물고, 음악 속에 머물며 스스로 묻는다.

‘이 양은 누구를 위해 결박되었는가? 그 희생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작품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적 성찰로 이끄는 영적 통로이다. 회화와 음악을 통해 복음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며, 더 나아가 살아내게 만든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요한의 외침이 우리 안에 울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침묵 속의 순종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 걷는 제자의 발걸음으로. 이 시대에도 수르바란의 붓과 바버의 선율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사무엘 바버의  
‘Agnus Dei’

## 이슈(ISSUE) 바로보기!

##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의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창 1:29).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시면서(28절), ‘너희의 먹을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라며 우리의 먹거리는 채소라고 명하셨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채식이 주식이었다. 그러나 나라와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은 위암이었으나, 최근에는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육식을 즐기는 서구의 식습관을 닮아가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육류 같은 먹거리를 선호하는 식습관과 더불어 몸을 많이 움직이던 농경사회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일할 수 있는 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대다수 현대인이 성인병을 한두 개쯤 가지고 살아간다. 나쁜 생활습관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니 성인병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생활습관병’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요즘 건강과 환경, 신념을 이유로 채식을 고

집하는 채식주의자(began)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생선은 섭취하는 등 육류를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있다.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기름진 육류 섭취를 제한해서 비만과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비윤리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해치거나 학대해서 만든 음식이라서, 지구 온난화에 축산업이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기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채

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창 9:2-3).

노아의 홍수 이후 물이 빠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물이 모두 빠진 뒤에도 지면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홍수 전처럼 채소만을 먹거리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생존이 위협 받았을 것

생하기 시작했다.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시키면서 발생하는 끔찍한 재앙이다.

우리는 식사 전에 음식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린다. 해와 비를 적시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재료를 기른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 이른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하신다. 이 말씀은 복음이 율법에 얽매인 유대민족부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전환점이 된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먹거리든지 감사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음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채식만 고집하거나 육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허락하신 채식을 육식보다 선호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바로접습니다. 지난주 신문(3월 23일자) 7면에 게재된 오은규 목사 신간의 출판사가 '동연' 이기에 바로접습니다

“우리가 어떤 먹거리든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음식일 것이다.”

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버터,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음식과 동물성 성분 없이 식물성 성분과 천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건 화장품 등의 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실험이 필요한데, 비건 화장품은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동물실험 없이 제조된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채소와 산 동물을 동시에 인간의 먹거리로 허용하셨다.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이다.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방주에 함께 하던 동물을 먹거리로 허용하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육류 중에서 소고기를 좋아한다. 특히 한우 사랑이 유별나서 수입한 소고기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데도 자주 찾는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소를 키우는 일이 기업화되면서 본래 초식동물인 소에게 발육을 빠르게 하려고 채소가 아닌 죽은 동물과 그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료를 먹은 소들에게서 뇌가 파괴되고,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이 발

## 정주호의 훌리바디

##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병문안을 가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환자로 착각이 될 정도로 병원에 환자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때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된다.

건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과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는다.

건강한 몸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래서 몸의 위기 앞에서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가 건강의 큰 관건이다.

성공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극복해 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삶이 단순해지고, 자신과 함께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식탁을 대하며 거룩한 포만감을 느끼고 절제하는 축복을 맛보기도 한다. 때



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 두신 삶의 건강한 달란트를 찾아내면서 하루하루가 작은 축제의 연속으로 변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울증과 자살, 심각한 대인 기피, 자기혐오, 멸시 그리고 열등감 등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삶에 쫓기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

하고 지나친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삶과 습관, 행동,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가치와 생각, 그 너머 영적인 건강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훈련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가 담겨있다. 필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부터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몸의 성전을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켜가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 5: 29~30).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혼,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스타트레인, 재활과학박사)

맛있는 말씀 해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눅 16:8)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해고될 위기에 놓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기름 100말은 50말로, 밀 100석은 80석으로 빚을 깎아준다(눅 16:1~7).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잘했다”고 칭찬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다. 왜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일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

첫째,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괜찮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보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고 강조하셨다.

둘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9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어떤 이들은 돈과 인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돈과 인맥을 축복의 수단으로 보면 재물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맞지 않다.

셋째, 청지기 이야기를 단순히 청지기의 똑똑한 처세술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 〈누가복음〉 16장은 15장의 ‘구원 이야기’와 16장 10~13절 말씀의 ‘충성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봐야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은 15장의 ‘잃은 양과 탕자 이야기’와 연결되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재물의 관계를 다룬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하며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생활했다. 청지기 이야기의 바른 해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발휘된 지혜를 칭찬하셨다. 청지기는 해고될 위기에서 ‘땅을 팔 힘은 없고, 구절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눅 16:3). 그래서 빚을 깎아주며 계획을 세웠다. ‘직장을 잃어도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눅 16:4). 주인은 청지기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칭찬했다(눅 16:8). 즉,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

씀하시는 것이다.

둘째, 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고 하셨다. 청지기 이야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가 핵심이다. 청지기는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돈을 영원한 데 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죽음이 나 심판 이후 구원받은 공동체를 뜻한다.

셋째, 예수님은 재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돈은 충성심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눅 16:11).

돈에 집착하면 영적인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눅 16:12).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청지기 이야기의 결론이다. 즉, 돈은 도구로 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청지기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우리도 세상 사람 것처럼 똑똑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이 옷을 입고, 구원의 공동체를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돈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돈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충성된 재물의 청지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최영민 목사  
(서산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광야 행진

3월 31일~4월 6일  
〈민수기〉 7:10~10:36



3월 31일~4월 6일  
〈민수기〉 7:10~10:36

목상포인트

1: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봉사 이전에 정결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레위인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신체적,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나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목상포인트 2:

민음의 여정에서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다. 또한 광야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언약 백성을 훈련하신다. 유월절 준수와 구름기둥에 담긴 하나님 뜻을 묵상하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시제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계속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증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치면서 오직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광야 길을 행진한다.

목상포인트 3: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구름기둥’이라는 시각적 도구와 더불어 ‘은나팔’이라는 청각적 도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했다. 구름기둥과 은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

심에 대해 묵상하자.

▶하나님은 공동체의 소집과 질서 있는 행진을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하신다.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절기에 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신다.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유다 진영을 선두로 행진을 시작한다. 모세는 장인 호바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임재를 간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성소의 등불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어두운 성소를 비추기 위함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함이다. 구체적인 봉사 이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준비하자.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잊으면 안 된다. 죄에 종노릇 하던 내게 구원과 참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자. ▶구름기둥은 오늘날 우리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성경)과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성실하자.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하며 협력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이의협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강서공동체 이의협 성도님이 지난 2월 위출혈로 지혈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졌고,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혈의 원인이 된 암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했고, 조직 검사 결과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절제술을 통해 위의 2/3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이의협 성도님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시작해 앞으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약물치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항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료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의협 성도님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과정을 함께하는 아내 김영미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가 길어질 거로 예상하는 만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머물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의협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성도님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강서공동체 성도들

#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오는 5월 26일(월)과 27일(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막 오른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3월 24일(월)부터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5월 7일(수)까지 사전 신청하면 참가비 40%를 할인해 준다(정가 10만 원).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 할인 혜택이 있다.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에서는 AI와 기록 OTT ‘풍당’을 활용한 미래 교회의 목회 전략을



지난해 진행된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모색한다. AI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미디어 사역에 대한 알찬 강의와 세미나가 이어진다.

문의: 02-3275-937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4월 6일과 13일 오후 8시 온라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이 4월 6일(일)과 13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면 된다.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 1, 2’, 13일 ‘예수 그리스도 3, 4’ 과목을 김요성 목사가 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 1, 2, 3, 4는 일대일제자양

육 양육자반 정식 과정 2~3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특강 ‘메이크업’은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강한 성도가 대상이다.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아직 양육 경험이 없는 양육자 재교육이 목적이다.

신청 및 문의: 010-3929-6793

##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신규 우물 2개 설치, 1개 수리

NGO 더멋진세상 동아프리카 남수단 식수 사업이 활발하다. 식수 접근성이 낮은 지역 2곳을 선정해서 신규 우물 2개를 설치하고, 기존 우물 1개를 수리했다. 신규 우물은 구텔 지역과 그레이스 아카데미(Grace Academy)에 각각 1개씩 설치했고, 남수단 수도 주바에 있는 주바대학교 우물을 수리했다.

정은희 선교사(남수단)는 “지금

남수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물인데,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독립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 발전이 어렵다. 많은 도움과 관심, 기도가 필요한 국가다.

/ 홍하영 기자

## 69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4월 11~13일 Acts29 비전빌리지

69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내적치유학교는 내면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

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용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최용준 목사(양재 상담실 담당), 오원웅 목사(마음공장심리치료연구원 원장), 오은규 목사(내적치유학교 담당)가 강의한다.

문의: 010-6330-7634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4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상반기 개강을 한다. 4월 8일(화)부터 6월 1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온라인커

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을 제공한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8~9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소그룹 모임을 한다. 온라인커뮤니티 소그룹 모임을 ‘플러크모임’, 소그룹 리더를 ‘플러크 리더’, 구성원을 ‘플러크 멤버’라고 부른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홍하영 기자

## 4월 화요성령집회 ‘His Pla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4월 화요성령집회가 ‘His Plan’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4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약속, 구원’(삼하

7:8~17), 8일 최대홍 목사 ‘하나님의 선택, 예수’(사 9:1~7), 15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롬 5:1~11), 22일 이서진 목사 ‘하나님의 승리, 부활’(행 3:1~10), 29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소원, 선교’(고후 5:11~2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아트비전 신임 작가 모집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함께 사역할 신임 작가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작가가 대상이다. 전문가와 비전공자(포트폴리오 검토)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동역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10-2321-6494)로 문의하면 된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사회선교본부 소속 예술문화사역팀이다. 예술 작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 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에서 정기예배 및 모임을 한다.

문의: 010-2321-6494

### 3월 세례자

|             |            |            |            |            |
|-------------|------------|------------|------------|------------|
| ■서빙고        | 손기업 김소희    | 장재이 240419 | ■여호수아      | ■J4U       |
| 고혜영 780205  | 유지원 240421 | 장재문 광재은    | 박상우 931103 | 임유나 991013 |
| 김은령 900515  | 유서진 박지희    | 장하준 230801 | 오희주 951221 | 입교         |
| 김의성 960601  |            | 장 옥 김향숙    |            | 이해성 010201 |
| 오동호 820925  | ■양재        | 정재희 240307 | ■허브        |            |
| 정효이 740513  | 배진서 760111 | 정해윤 신은영    | 김정현 970701 | ■SNS       |
| 유아          | 심영수 690827 | 한다인 240109 | 남서현 980828 | 김수정 840919 |
| 김시안 210813  | 조문주 790325 | 한새별 한아라    |            | 김현진 970314 |
| 김승필 윤지은     | 최병혁 620119 | 함지안 240830 | 입교         | 장진우 940413 |
| 김조수아 220330 | 유아         | 함정록 송서연    | 김아진 000608 | 조영민 940315 |
| 김태현 이주영     | 고은우 230523 |            | 김예영 050224 | 진주희 940228 |
| 박시은 230723  | 고길현 허윤선    | 〈대학청년〉     | 두혜진 970827 | 입교         |
| 박민재 황평화     | 송이현 240311 | ■갈렘        | 이가원 060507 | 김기쁨 960411 |
| 손로이 240607  | 송주영 문혜민    | 유아         | 현예림 051205 | 임지선 950127 |
| 손기업 김소희     | 이하연 230805 | 한경민 231207 |            |            |
| 손리엘 220818  | 이규민 강운주    | 한선웅 김혜민    |            |            |

###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30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

|      |      |       |      |       |     |      |         |
|------|------|-------|------|-------|-----|------|---------|
| 가정사역 | 고양은평 | 동대문중앙 | 성동광진 | 신용산   | 김은령 | 박종숙  | 한강      |
| 나석주  | 김미나  | 이상환   | 김경목  | 박기쁨   | 백은식 |      | 고현무     |
|      | 김영호  |       | 김은경  | 변우용   | 송미정 | 이춘   | 김수범     |
| 강서   | 박태환  | 동작    | 배빛나  | 홍석민   | 신효섭 | 이선화  | 박건호     |
| 김세창  | 신예식  | 구재운   | 이미애  |       |     |      | 서영애     |
| 양정은  | 이혜상  | 김은영   | 임대혁  | 한서연   | 양천  | 용산   | 일산파주    |
|      |      |       |      |       | 신동원 | 고선영  | Ha Jean |
| 강촌   | 관악금천 | 서대문   | 성북   | 여의도   | 기영희 | 김창호  | S브릿지    |
| 남성식  | 권경미  | 봉윤이   | 김택구  | 유지훈   | 김지은 |      | 김동호     |
| 문용일  | 이은진  | 정해윤   | 이지원  | 황미연   | 유근창 | 중종로  | 장지원     |
| 오지유  | 조진경  |       | 임해연  |       | 황경순 | 정승리  | 전은혜     |
| 이정선  | 남대문북 |       | 홍정범  | 영등포구로 | 이수  | 찬양사역 |         |
| 전인숙  | 서종원  | 서빙고   |      | 김강훈   | 김경미 | 이병진  |         |
| 정다정  | 유승규  |       |      |       |     |      |         |

[illegible]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Population                                                    | 76.5  | 80.5  | 84.5  | 88.5  | 92.5  | 96.5  | 100.5 | 104.5 | 108.5 |
| GDP per capita                                                | 1,200 | 1,500 | 1,800 | 2,100 | 2,400 | 2,700 | 3,000 | 3,300 | 3,600 |
| Life expectancy at birth                                      | 65    | 68    | 71    | 74    | 77    | 80    | 83    | 86    | 89    |
| Urban population (%)                                          | 35    | 45    | 55    | 65    | 75    | 85    | 90    | 95    | 98    |
| Employment rate (%)                                           | 55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95    |
| Unemployment rate (%)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 Government expenditure as % of GDP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 Private consumption as % of GDP                               | 55    | 58    | 61    | 64    | 67    | 70    | 73    | 76    | 79    |
| Investment as % of GDP                                        | 25    | 28    | 31    | 34    | 37    | 40    | 43    | 46    | 49    |
| Exports as % of GDP                                           | 18    | 22    | 26    | 30    | 34    | 38    | 42    | 46    | 50    |
| Imports as % of GDP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 Current account balance as % of GDP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 of GDP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ternational reserves as % of GDP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Public debt as % of GDP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 Household savings as % of GDP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Corporate savings as % of GDP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Government savings as % of GDP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Total savings as % of GDP                                     | 16    | 19    | 22    | 25    | 28    | 31    | 34    | 37    | 40    |
| Capital formation as % of GDP                                 | 25    | 28    | 31    | 34    | 37    | 40    | 43    | 46    | 49    |
| Fixed capital formation as % of GDP                           | 20    | 23    | 26    | 29    | 32    | 35    | 38    | 41    | 44    |
|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s % of GDP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Net capital formation as % of GDP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 Trade credi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Portfolio investmen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Direct investmen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Reserve asse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Other investmen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financial flow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primary income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secondary income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tertiary income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quaternary income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abroad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current transfer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capital transfer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portfolio investmen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other investmen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reserve asse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other financial asse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non-financial asset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government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private sector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household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corpora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government enterprise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multilateral institu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bilateral institu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Net income from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 of GDP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

선교사를 위한 방송에서 선교를 위한 미디어로,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CGN은  
'선교의 내일'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 I 개국특집방송

### 개국특집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청하기



개국부터 함께 해 온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  
CGN 20년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습니다.



반태호 목사



조호영 목사

### CGN 개국감사예배

3월 29일(토) 오전 8시 20분



### CGN 20주년 특집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본방송 3월 30일(주일) 밤 8시 20분

재방송 3월 31일(월) 저녁 6시 10분

